

# 자연을 품은 기독교 상담: 클라인벨의 기독교 생태 요법을 중심으로

송 경 화\*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는 훼손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생태계 치유와 회복을 통해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돕고자 하는 기독교 생태 요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자연 훼손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공존과 상호 의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를 포함한 모든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심리적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생태 요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상담에서도 이와 같은 생태 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유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자연 파괴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온 인간중심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Howard Clinebell의 제안을 적용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자기 돌봄, 영혼 돌봄, 그리고 자연 돌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잡힌 기독교 생태 요법을 제시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연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자연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주제어:** 생태계, 인간중심주의, 이원론, 생태 요법, 기독교 생태 요법

-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8일
  - \* 웰즈리언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
  - 본 연구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상담분과 발표(2021년 4월 24일) 논문임.

## I. 여는 글

벌써 1년을 넘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동, 식물, 자연 환경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생존과 복지도 서로에게 얼마나 상호 의존하는지를 생생하게 실감하게 했다.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자연 환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 함부로 착취해 왔으며, 그 결과가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앙이라는 것이 사실 놀랍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다.

대량의 목재 공급과 사람이 필요한 넓은 땅을 얻기 위한 명목으로 열대 우림은 대량 소실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댐가로 자연을 훼손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종류별로 창조하신 많은 동식물 종은 서식지를 잃고 먹이를 잃고 점차 멸종되고 있다. 생태계의 불균형은 먹이사슬을 혼란시키고, 포식자가 없어 과대 증식하는 종과 멸종하는 종이 뒤섞이게 만든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 물질은 대기와 물의 자정능력이 감당할 수준 이상이고, 흙은 수고하여도 더 이상 열매를 주지 못하는 죽은 땅이 되어간다. 산업폐기물과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독성물질을 끊임없이 토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대기의 혼란과 함께 기후가 난폭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생물 종들은 멸종하고, 여기에 더하여 야생 동물들을 함부로 포획하고 밀거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한다. 지구 전체가 병들어 더 이상 인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밀거래와 기후 변화, 그리고 무너진 생태계의 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Chaudhury & Banerjee, 2020). 인류는 더 이상 코로나19에 대해 특정 국가나 박쥐만을 탓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인류의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앙으로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더 이상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이성호, 2020).

자연을 이렇게 재생불능의 수준까지 착취하고 학대한 주체가 대체로 근대 이후 서구 문명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종교적, 사상적 배경인 기독교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이정배, 2010). 이에 대한 신학적 담론은 이미 생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자연 파괴는 여전하고, 결국 온 생태계가 자멸하는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좋았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이 시대 신학자들의 공동 책임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처럼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새삼 일깨워줬다. 각종 뉴스와 통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관련 정신적 문제, 자살 생각과 시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보고한다(Chaudhury & Banerjee, 2020; 이동훈 외, 2020; 이은환, 2020; 박일준, 2020). 이에 따라 정신적 돌봄의 사역인 상담의 필요 또한 급증했다. 상담학계는 오랫동안 환경과는 독립된 개인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한 개인의 내면 건강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자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 사회, 문화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체계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 건강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에 관심하는 생태심리학과 생태적 상담 요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생태계와 개인 내면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현재의 필요에 시기적절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생태적 상담 요법은 신학자이며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Howard Clinebell(1996)에 의해 상담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는 도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응답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기독교 상담에서 생태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 정신건강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생태계 훼손과 회복을 신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후, 상담학계에 소개되고 있는 생태적 상담의 역사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의 생태적 상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제적 방법들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계 훼손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근대 이후에 심각해진 생태계 훼손이 주로 서구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문화권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생태계 훼손에 미친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으며, 이것은 또한 생태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시사한다. 생태계의 훼손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독교적 영향력은 인간중심주의적 사상 (anthropocentrism)이다(Kinsley, 1995; 김균진, 2007; 김경철, 2019). 이것은,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고 절정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이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훨씬 우월한—특별한 존재라는 신념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역시 다른 피조물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고 인간만 사랑한다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착각은 성경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잘못 해석한 데 기인한 것이다.

역사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린 화이트(Lynn White, 1974)는 그의 논문에서 창세기로 인해 인간의 자연 착취가 합리화되었으며, 기독교의 창조론이 서구의 과학과 기술 문명에 의해 야기된 생태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화이트의 주장이 당시와 후대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을 생태 위기와 연관지었던 그의 시도는 신학자로 하여금 많은 성찰을 하도록 도전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면서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셨고 마지막 6일에 “심히” 좋게 보셨는데, 이것은 그 날 창조하신 사람이 특별히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사실 6일에 사람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동물을 다 창조하셨다—사람을 포함하여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게 여기셨다(창 1:31). 인간의 자연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정복하라, 다스리라—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이 문제가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시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시는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15, 16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1장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2장의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 즉, 착취와 파괴가 허용된 소유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소유의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위임 받은 창지기의 개념으로 자연을 대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다. 즉,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은 마지막 피조물이자 자연을 돌보는 자로 위임 받은 창지기로서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심히 좋은” 상태 그대로 지키고 돌보며, 자연은 그런 인간에게 여러 가지 먹거리를 허락하는, 평화로운 상호의존의 공생과 조화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인간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언급도 발견된다(창 3:19, 창 3:23). 물론,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김경철(2019: 12)은 인간과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이것이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책임과 헌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과는 다른 특별함을 소유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좋은 것이라기보다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 관계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창 3:17, 18).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간 뿐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는 구속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방과 구원을 기다린다고 표현했으며 (롬 8:18-25),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하였다 (골 1:20).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단지 사람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며 (요 3:16-17),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구원의 완성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자연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 (계 21:1). 즉,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이며,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도 함께 타락하여 함께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구원받을 것이며 종말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의 모든 역사에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중심에 놓으시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적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김경철, 2019: 15). 이런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과 결합하여 강력한 사상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Snyder & Scandrett, 2015). 즉, 정신과 물질, 성(聖)과 속(俗), 이성과 감정, 천국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영혼과 몸,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생, 남자와 여자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가 더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서로의 상호의존성은 간과되었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Nash, 2014). 이렇게 기독교 사상 속에 침투한 이원론을 Howard A. Snyder와 Joel Scandrett(2015: 25)은 죄로 인해 초래된 “하늘과 땅의 이혼”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 분리로 인해 인간은 “자연과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다(Snyder & Scandrett, 2015: 144-148). Snyder와 Scandrett, (2015: 15, 16, 52)은 “아픈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전체 생태계를 포함한 “피조물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결합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생태계를 포함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강조 한다.

한승진(2009: 199)의 말처럼, “생태계의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중심적 이원론은 사람과 자연, 남성과 여성이 상호 의존과 상호 존중의 관계로 공존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한 쪽이 다른 쪽을 억압하고 착취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상처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창조 세계를 심히 좋게 보셨으나,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잘 돌보고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인간이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인간의 필요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착취한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계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토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회복하고 바른 자연관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김경철, 2019).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은 창조의 중심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에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신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함께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종말에도 전체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복지와 건강, 행복은 자연의 복지, 건강, 안녕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존 관계이다(김은혜, 2009). 인간은 그동안 당연시했던 자연의 통치자, 소유자,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해야 한



다. 병든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듯이 병든 지구에서 그 일부인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지구를 돌보고 회복시켜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인간의 정신건강에 관심하는 상담 역시 전체 생태계의 건강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자연의 안녕을 배제한 상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로서 인간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을 통한 치유를 중요한 상담의 부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 방안들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 2. 자연을 활용한 상담: 생태 요법

오랫동안 심리학은 인간 내면에만 관심한 나머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중요한 주제로 간주하지 않았다(Chaudhury & Banerjee, 2020: 3). 자연을 중요한 주제로 포함시킨 심리학은 1963년 Robert Greenway가 심리학과 생태학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심리생태학(psyoec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그 이후 Greenway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Theodore Roszak가 1992년에 생태심리학(ecopsychology)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로자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생태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인 통찰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체 생태계와 개인과의 관계를 발견하도록 도우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Hibbard, 2003). 그리고 생태심리학의 한 분야인 생태 요법(ecotherapy)은 자연을 통해 심리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생태 요법'이란 용어는 자연과의 접촉을 인간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던 신학자이자 기독교/목회 상담학자였던 Clinebell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지만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보다는 일반 상담에서 후속적인 연구와 적용이 이어져 왔다. 현재 생태 요법은 주로 “자연을 이용해서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Wilson et al., 2010: 5).

생태요법의 기본 가정이 되는 것은 인간의 선천적인 자연애호 (biophilia) 성향에 있다. 즉, 인간은 자연/생물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연과의 교류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Wilson, 2007: 29).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원료인 흙으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셨다는 것과, 피조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그 피조세계 안에서 잘 연합되게 창조하셨던 창조의 과정을 고려할 때, 신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애호 성향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에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증진시켰을 때 개인의 발달 역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Chaudhury & Banerjee, 2020: 6). 실제로, 많은 생태심리학자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크게 감소시키고, 정신적 피로감, 공격성, PTSD 증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 집중력, 인간 관계, 치매와 암 환자의 회복력, 전반적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audherty & Banerjee, 2020: 4-6; Burls, 2007: 26, 27; Maller et al., 2006; Wilson et al., 2010: 5; Wilson et al., 2009; Jules et al., 2021). 이 가정에 의거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개인에게 자연을 가까이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의 치유 능력을 통해 정신적인 회복을 증진시키려는 방법으로 다양한 생태요법의 기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Pourabi Chaudhury와 Debanjan Banerjee(2020)는 생태요법을 크게 8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치료적 원예, 동물을 사용한 치료, 농장 돌봄, 환경 관련 대화, 녹색 운동, 자연 관련 예술 활동, 야생 치료, 그의 특수 생태요법이다. Chaudhury와 Banerjee가 소개한 8개 범주의 생태 요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치료적 원예는 단순히 정원을 감상하는 것부터 직접 꽃, 야채,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을 포함하는데, 불안, 우울, 스트레스, 번아웃, 고립감을 줄이며 자존감,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동물을 사용한 치료는 애완 동물이나 말, 혹은 길들여진 동물과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런 동물들은 사람에게 선입견 없이 다가오고 모두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크다. 동물을 이용한 치료는 자존감, 생동감, 활기를 높여주며 공격성, 짜증,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특히 아동 성학대로 인한 PTSD 환자들의 불안감과 생리적 증상을 상당히 줄여주며, 조현병이나 성격장애 환자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농장 돌보는 전원의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 것을 포함하는데,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며 기분을 안정시켜 주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켜 준다. 환경 관련 대화는 자연, 건강, 환경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전반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녹색 운동이란 시골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인데,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자존감과 전반적 건강감을 증진시켜 준다. 자연 관련 예술 활동은 야외 자연 속에서 자연을 그리거나 자연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자연에 대한 시를 짓는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반적인 행복감과 건강감을 높여준다. 야생 치료는 외딴 야생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이 자연과 심도 깊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데,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

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특히 PTSD, 청소년 문제 행동, 각종 중독 재활, 분노 조절 문제, 조현병, 가족 치료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특수 생태요법은 위의 다양한 생태요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야생에서 자연과 감각적으로 접촉하고 명상을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Neil Wilson과 동료들(2010)이 사용한 생태요법 프로그램은 크게 6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보존 (conservation: 번식력 강한 외부 유입 종 제거하기, 씨뿌리기, 나무 심기, 과실수 관리, 쓰레기 줍기 등), 만들기 (construction: 새집, 바구니, 화관, 벤치, 울타리, 오두막 등 만들기), 숲 작업 (지도 읽기, 방향 찾기, 숙소 만들기, 불 피우기, 캠프 파이어로 요리하기, 매듭 만들기, 각종 캠핑 도구 사용하기, 나무 이름 익히기 등), 운동 (야외에서 하는 다양한 운동), 환경 예술 (사진 찍기, 화환 만들기, 엽서 만들기, 나무 포장하기, 점토 만들기, 잡초로 꾸미기 등), 기타 (시골에 있는 박물관 방문하기, 장작 패기, 통나무 제재소 방문하기 등)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현재의 생태요법은 자연을 보거나, 자연 안에 있거나, 자연과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방법을 상담자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Burls, 2007). 이런 방법을 통해 내담자가 최대한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 내면에 있는 자연 애호 성향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기 내면의 자연을 다시 회복하게 되며, 자연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통해 부정적 증상을 줄이고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생태 요법의 핵심이다(Chaudhury & Banerjee, 202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태 요법은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담실에서의 면대면 상담이

나 약물 치료 등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명상 등의 방법으로 이미 익숙한 방법이지만 상담과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구조화되어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현재 상담과 심리치료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태 요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태학자인 Baird Callicot(1994: 30, 31)는 생태 윤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인간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간중심적 윤리(anthropocentrism), 감각을 가진 생명체인 동물의 유익과 복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명중심의 윤리(biocentrism),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유익과 상관없이 생태계의 모든 것들에게 고유의 가치가 있으며 인간은 그것들과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생태중심의 윤리(ecocentrism)가 그것이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생태 요법은 이 세 가지의 윤리 중에서 인간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한다는 첫 번째 인간중심적 윤리에 주로 해당되며, 두 번째 생명중심의 윤리를 약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잘 보존하고 돌보라는 성경적인 청지기적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자연과 환경을 잘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생태윤리에 충실한 생태 요법이 필요하다(전현식, 2003).

### 3. 자연을 품은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의 생태 요법

Clinebell(1979)은 1979년 생태심리학이 태동하던 초기에 이미 그의 책 『성장 상담학』에서 치유와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여섯 가지 차원 중에

자연을 포함시켰다. 아직 일반 심리학계에서 생태 요법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그는 개인의 치유와 성장에 있어서 자연의 치유 에너지를 깊이 있게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피조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Clinebell, 1994). 그리고 1990년 초에 “사람의 돌봄과 치유는 지구의 돌봄과 치유가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때에만 온전하다”고 주장하면서(Clinebell, 1994: 210),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 모델을 기존의 기독교/목회 상담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Clinebell, 1974).

Clinebell은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고통의 치유라기보다는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강조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상담 모델을 성장 상담이라고 불렀다(Clinebell, 1979).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상처와 고통이 없는 상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근거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성장상담의 중요한 부분이다(Clinebell, 1992: 4). 그리고 그런 희망은 바로 사랑의 힘에 있다고 Clinebell은 강조한다(Clinebell, 1992: 4). 그는 전인 건강의 핵심은 사랑인데, 특히 7가지를 균형 있게 모두 사랑하고 이 7가지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전인 건강이라고 보았다. 그 7가지는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 못지않게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보는 것, 자신의 직업과 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일 못지않게 놀이를 사랑하는 것, 지구를 돌보고 지구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움으로써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경이로운 연결망(network)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치유와 전인성의 원천인 성령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Clinebell, 1992: 4-6; Clinebell, 1995). 각 개인이 힘써 사랑하고 돌봐야 할 영역의 하나로 전 지구적인 생태계를 포함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으로부터 치유의 유익만 얻고자 하는 생태심리

학적인 방식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Clinebell(1992: 9)이 설명하듯, 인간의 건강은 자연과 전 지구의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이 함께 이 “신기하고 아름다우며 다치기 쉬운 지구”를 정성스럽게 돌봐야만 자연으로부터 치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Clinebell(1996: xxi)은 생태 요법을 “지구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양성되는 치유와 성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태 요법의 핵심으로 생태 영성(ecological spirituality)을 강조하였는데, 생태 영성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생태적 순환(ecological circles)을 통해 구체화된다(Clinebell, 1996: 7-9). 생태적 순환은 자연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자기 돌봄(Self-care), 영혼 돌봄(Soul-care), 지구 돌봄(Earth-care)”이라고 할 수 있다(Clinebell, 1996: 1). 첫 번째인 자기 돌봄은 자연의 무한한 생동감과 치유 에너지를 통해 개인이 양육과 치유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연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차원인 영혼 돌봄은 자연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에 경이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며, 개인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더욱 정성껏 돌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 번째 차원인 지구 돌봄으로 이끄는 데, 즉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자연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일반 상담에서의 생태 요법은 이 생태적 순환에서의 첫 번째 차원인 자기 돌봄만을 충족시킨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생태 영성을 함양하기 어려우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

로 하여금 자연을 통해 자기를 치유하는 첫 번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의 청지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다. 특히 세 번째 차원인 지구 돌봄은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서의 참여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공적인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기독교 생태상담자는 단순히 개인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대면 만남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적 영역에서 대중의 의식을 깨우는 공공신학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Miller-McLemore, 2004). 같은 맥락에서 Clinebell (1996: 12-15)은 상담자가 실시하는 생태요법과 별개로,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실시해야 하는 생태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한다. 교사와 부모들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 세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연을 돌보는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담자가 Clinebell이 말한 생태적 순환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초보 상담자를 교육하는 신학교나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서 생태 요법을 직,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상담 실습과 슈퍼비전에서 생태 요법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한다(Clinebell, 1994). 또한 내담자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치유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Clinebell(1996: 190-194)이 추천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인적인 자연 경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자연의 상실이나 훼손



손을 실감하여 마음 아팠던 이야기, 혹은 최근 경험한 경이로운 자연과의 만남 이야기 등, 상담자와 내담자의 생생한 자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상실한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linebell(1996: 170-172)은 내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진단 기준에 생태적 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즉, 외적으로는 내담자의 자연 경험은 어떤 것인지, 내담자와 자연과의 관계의 질은 어떤지 평가하고, 내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이미지, 감정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통해 내담자와 자연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태적 순환의 세 가지 차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평가 과정에서 내담자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자연과의 소외로 인한 상처, 답답함, 고통 등에 대해 기독교 상담자에게 편하게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애도의 과정이 된다(Clinebell, 1992).

생태적 순환의 첫 번째 차원은 상담 안에 자연을 담기 위한 차원이다. 자연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연의 생명력과 활력, 그리고 치유력을 통해 치유와 성장을 기대하는 차원이다. 이를 돕기 위해 기독교 상담자는 앞에서 소개된 일반 생태 요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담이나 슈퍼비전의 장소를 자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이를 위해 야외 자연 속에서 상담이나 슈퍼비전을 진행할 수도 있고, 창문을 열거나, 채광을 풍부하게 하거나, 다양한 동식물을 상담실에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원예, 농장일, 동물,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 숲 체험, 자연 속에서의 명상이나 걷기, 자연을 주제로 한 이미지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적는 일지 쓰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생태적 순환의 두 번째 차원은 자연 안에 담긴 하나님을 자연을 매개

로 하여 만나고 영성을 깊게 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속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개인이 홀로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함께 할 수도 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도 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거나 시를 쓰는 방법도 있다. 자연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 애쓰고,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종종 자연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숨이 멎도록 감격스럽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연의 모습들을 통해 더욱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통찰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내담자를 격려한다.

생태적 순환의 마지막 차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마음속에 자연을 품고 자연을 사랑하며 돌보는 차원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지구를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함께 만들어 본다. 여기에는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하기, 집과 동네 청소하기, 자동차 사용 줄이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내담자가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동기 부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식료품점 앞에서 나누어 준다거나, 지역 곳곳에 나무를 심고 가꾼다거나, 다 함께 청소하는 날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의회나 학교 학부모회 등의 정책 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중요한 공공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의견을 내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검색하여 내담자 개인에게 적합한 단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각 단체에서는 관심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내담자가 할 만하면, 신문에 기사를 쓰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적절한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창의성에 의해 다양하게 더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자연을 품은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창조 당시에 인간이 누렸던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치유와 돌봄을 풍성히 받으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 세계의 청지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연을 돌보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재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한 필연적인 인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III. 닫는 글

#### 1. 한국적 기독교 생태요법을 향하여

Clinebell(1996: 9)의 말처럼, “지구를 돌보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자신과 내담자를 포함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간과한다면, 지금처럼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담자의 전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도모하기 힘들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에 모든 피조물의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게 보셨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다 함께 타락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스스로를 우위에 두고 피조물을 함부로 남용하고 착취할 때, 모든 피조물의 상호 연결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저지른 일이었다(Clinebell, 1996: 1).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서로 떼어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다. 이제 기독교 상담은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기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과 슈퍼비전의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을 품는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단순히 내담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자멸”을 막고,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작지만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Clinebell, 1992: 272; Snyder, 2015).

시대의 도전에 마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소수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와 그 일부인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의 기독교 상담자들이 자연을 품은 기독교 상담을 만드는 데 참여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 상담자들의 새로운 과업이고 책임이다.

Clinebell의 생태요법은 기독교적 상담 뿐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도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inebell의 기독교 생태요법을 한국의 기독교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화적, 신학적 한계가 있다. Clinebell의 기독교 생태요법은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던 서구 문화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는 달리 자연을 인간 삶의 일부로 보고 자연친화 사상을 전통으로 했던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과 생태파괴를 바라보는 시선이 Clinebell의 것과 같을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와 함께 서구의 인간중심적 가치관이 들어와 전통적인 자연친화 정신이 대체되었

다면, 잠시 잃었던 우리의 자연친화 사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태요법의 첫 시도이자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의 풍류도나 음풍농월하는 문학 작품, 혹은 자연을 표현하는 판소리나 춤을 감상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배우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담 현장에서 이와 같은 한국적 생태 접근을 접목하는 시도가 절실하다.

정희영(2010)이 발표한 한국 기독교 내의 생태 관련 연구에 대한 최근의 동향 분석을 참고하면, 한국 기독교 생태 연구는 꾸준히 늘다가 2006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희영(2010: 152)은 그 원인에 대해 생태 관련 연구가 주로 진보적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다가 그들의 관심이 다른 주제로 옮겨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생태파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보인다. 신학자들은 생태적 관심과 이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적용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이 지구에 대한 청지기적 삶을 바르게 살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정희영, 153). 또한 정희영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내 생태 관련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실천적 연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데, “생태”라는 주제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매우 실천적인 주제로서, 문헌 연구에만 치우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의 현장에서 실제로 생태 요법을 실천해 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연구하며 더 다양한 한국적 생태 요법을 제안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앞으로도 더욱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경철 (2019).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에 대한 생태 신학적 고찰. *조직신학 연구*, 33, 10-41.
- 김균진 (2007).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조직신학논총*, 12, 11-50.
- 김은혜 (2009).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36, 179-205.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운, 남슬기, 김지운 (2020).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 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전자저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시대, 정신 건강 안녕한가! *이슈 & 진단*, 1-25.
- 이정배 (2010). 어떻게 우리는 '기후붕괴 원년' 을 살게 되었는가? *기독교사상*, 184-200.
- 전현식 (2003). 창조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태 윤리적, 과정 신학적 고찰.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8(1), 125-150.
- 정희영 (2010). 우리나라 기독교 생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신앙과 학문*, 15(4), 139-158.
-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2020).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 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한승진 (2009). 생태계 위기와 윤리적 생태신학. *종교문화연구*, 12, 177-201.
- Burls, A. (2007). People and green spaces: Promoting public health and mental well-being through ecoterapy.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6(3), 24-39.
- Callicot, B. (1994). Toward a global environmental ethics. In M. E. Tucker & J. A. Grim (Eds.), *Worldviews and ecology: Religion, philosophy, and environment* (pp. 30-30). Maryknoll, NY: Orbis Books.
- Chaudhury, P., & Banerjee, D. (2020) "Recovering with nature": A review of ecoterapy and implications for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1-12.
- Clinebell, H. (1983). *성장 상담학*(김선도 역, *Growth counseling: Hope-centered methods of actualizing human wholeness*). 서울: 광림, (원

전 1979 출판).

- Clinebell, H. (1992). Looking back, looking ahead: Toward an ecological–systems model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46(3), 263–272.
- Clinebell, H. (1992). *Well being: A personal plan for exploring and enriching the seven dimensions of life*.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Clinebell, H. (1994). Greening pastoral care.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48(3), 209–214.
- Clinebell, H. (1995). *Counseling for spiritually empowered wholeness: A hope-centered approach*. New York: Haworth Pastoral Press.
- Clinebell, H. (1996). *Ecotherapy: Healing ourselves, healing the ear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 Hibbard, W. (2003). Ecopsychology: A review. *The Trumpeter*, 19, 23–58.
- Kinsley, D. (1995). *Ecology and religion: Ecological spiritualit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Maller, C., Townsend, M., Pryor, A., Brown, P., & Leger, L. (2006). Healthy nature healthy people: ‘Contact with nature’ as an upstream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for populations. *Health Promot Int.*, 21(2), 45–54.
- Miller-McLemore, B. (2004). Pastoral theology as public theology: Revolutions in the “Fourth area”. In N. Ramsay (Ed.),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defining the paradigms* (pp. 45–64). Nashville: Abingdon Press.
- Moltman, J. (2017).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역, *Gott in schopfung*). 서울: 대한기독교서회.(원전 2002 출판).
- Nash, J. A. (2014). 기독교 생태 윤리 (이문균 역, *Loving nature*).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원전 1991 출판).
- Roszak, T. (1992). *The voice of the eart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uether, R. R. (1992). *Gaia and God: An ecofeminist theology of earth healing*.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Snyder, H. A., & Scandrett, J. (2015).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 땅과 하늘의 이혼을 극복하는 죄와 은혜의 생태학 (권오훈, 권지혜 역,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The ecology of sin and grace*). 서울: 대한기

독교사회.(원전 2011 출판).

- White, L. (1974).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D. Spring, & E. Spring (Eds.),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pp. 15–31). New York: Harper & Row.
- Wilson, E. (1984). *Biophilia: The human bond with other spec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son, N., Ross, M., Lafferty, K., & Jones, R. (2009). A review of ecotherapy as an adjunct form of treatment for those who use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7(3), 23–35.
- Wilson, N., Fleming, S., Jones, R., Lafferty, K., Cathrine, K., Seaman, P., & Knifton, L. (2010). Green shoots of recovery: The impact of a mental health ecotherapy programme. *Mental Health Review Journal*, 15(2), 4–14.
- Pretty, J., Griffin, M., Peachock, J., Hine, R., Sellens, M., & South, N.(2011, October 19). A countryside for health and well-be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benefits of green exercises. Report for Countryside Recreation Network. Retrieved April 1, 2021, from <https://www.slideshare.net/KlausGroenholm/a-countryside-for-health-and-wellbeing-the-physical-and-mental-health-benefits-of-green-exercise>.



【 Abstract 】

Embracing the Nature:  
Toward a Christian Ecotherapy Informed by H. Clinebell

Song, Kyung Hwa\*

In this paper, I propose a Christian ecotherapy which facilitates clients' healing and growth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ature that is already damaged beyond its capacity of self-recovery. I address the current state of exploitation of the Nature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and argue that it is all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for the recovery of the balanc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all God's creatures. Considering that various techniques of ecotherapy have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in the 21st century, I suggest that Christian counselors also need to appropriate those techniques for their counseling ministry. However, we need further theological reflection on this because the usage of the Nature for the benefit of human's mental health is along the same line with the anthropocentrism and dualism that have been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e. In this paper, referring to Howard Clinebell, I propose a Christian ecotherapy balanced among self-care, soul-care, and earth-care through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Nature. Through the proposed Christian ecotherapy, Christian counselors can encourage their clients to be healed by the Nature, to encounter God deeply, and to participate in earth-healing project as stewards of the Nature, and eventually to experience the holistic growth and healing.

**Key words:** eco-system, anthropocentrism, dualism, ecotherapy,  
Christian ecotherapy

\* World Missi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